우리농업, 농촌 이렇게 가야합니다

우리 농업의 여건과 앞으로 대책

우리 농림수산업은 지금 그어느때보다도 어려운 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열정을 갖고 농어촌개발에 임하고 42조원을 투입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실효를 거둘때 오늘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될수 있는 것입니다. 〈농림수산부 제공〉

▲우리 농업·농촌이 지금 안고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농촌인구는 줄고 노동력마저 노령화·부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업위주의 경제개발 전략에 따른 고도경제성장으로 비농업부문의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도·농간 생활수준의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농어촌지역 젊은층의 이농과 영농기피 현상이 증가하여 매년 약40만명 정도의 농가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에 남아있는 농가인구의 연령별·성별 구성으로 보면 노령화·부녀화 현상이 심화되어 50세 이상의 농가인구는 70년 15·6%에서 91년에는 39·1%로, 50세 이상의 농림어업취업자는 70년 20·5%에서 91년에는 59·5%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우리 농업의 담당인력을 확보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농규모가 너무나 영세합니다.

91년 현재 우리나라 가 농가 경지규모는 약 1.2정보에 불과하며, 경지규모가 1정보 미만인 소농이 전체 농가에서 약6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의 경지(초지제외) 규모를 보면 일본·대만은 우리와 비슷한 1정보 정도입니다만, 미국은 85정보, 영국은 27정보, 독일은 10정보, 프랑스는 17정보로서 우리보다 월등히 큰 규모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농규모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외국농업과의 경쟁은 물론 국내의 다른 산업종사자와의 소득균형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하고 기계화도 미흡합니다.

그동안 논 위주로 경지정리,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왔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밭에 대한 기반정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농기계화의 경우도 벼농사는 어느 정도 기계화가 이루어졌으나(기계화율 84%), 원예·과수 등 밭작물과 축산의 기계화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농림수산업의 생산성이 낮습니다.

이같은 농업노동력의 질적저하, 영농규모의 영세성,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기계화의 미흡 등 구조적인 문제로 농수산업의 생산성이 타산업에 비해 낮고, 이에 따라 전체 국민경제는 지난 20년동안 연평균 8·6% 성장한 반면 농림어업부문의 성장률은 1·8%에 그쳤으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부문의 비중도 70년 26·6%에서 91년에는 8·1%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크고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농수산업의 저생산성과 농촌의 다양한 소득원 부족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도로·상하수도·주택 등 생활환경과 교양·의료등 문화복지시설이 크게 낙후되어 이농현상을 가속화시키고 농어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농수산업은 거의 전면 개방이 불가피합니다만, 앞에서 본우리 농수산업의 여건은 외국농업과 당당히 경쟁하기에 아직은 불충분한 실정이므로, 따라서 농수산물의 수입을 개방하더라도 우리 농수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방화시대… 우리가 해야할 일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겠습니다

국민식량을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업, 농촌이 맡아야 할 기본적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온실효과등 세계기상조건의 변화로 인한 식량공급여건의 악화와 저개발국의 인구증가등 식량수요 증가현상은 장기 세계식량 수급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소련등 동구권과 인도·방글라데시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량부족과 기아 문제가 이를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하에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역할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해야겠습니다.

농수산업의 터전인 농지·산지·바다는 우리 국토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다가 농수산업이 갖는 녹지자원을 통한 국토환경 보전 역할은 국민의 여가·휴양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더욱 중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집중호우시 우리나라 논의 저수량이 6대 다목적댐의 1·5배인 23억톤이라는 분석은 농업의 국토보전기능을 잘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고려한 유기농업등 환경·자연과 조화되는 농업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도시의 과밀화를 막고 농촌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수산업이 발전하고 농어촌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렇게 될 경우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함으로써 국가도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으로서 농촌을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농업은 푸른자연을 제공하여 국민의 여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국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은 미풍양속과 고유한 민족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민 모두의 마음의 고향으로서 일체감을 확보하는데도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은 장차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업경영규모 확대는 농민의 소득을 타산업 종사자와 균형되게 하고, 규모가 큰 외국농업과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제1의 요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가소득의 29%, 농업소득의 48%를 차지하는 쌀과 같은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규모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임금이 상승하는 현 상황에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계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계화를 위해서도 일정 규모이상의 영농규모 확대가 요청됩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계화·시설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촌 노동력이 양적으로 감소하고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여건을 극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편리한 영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계화·시설현대화의 방향으로 하루 빨리 나아가야 합니다.

네덜란드·덴마크 등 농지가 좁은 나라가 농업선진국이 된것은 농업의 기계화·시설현대화에 힘입은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농사도 기술혁신과 정보의 원활한 전달을 통한 과학화·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농업이 규모화·기계화·시설현대화를 완벽하게 추진한다고 해도 경지규모가 월등히 큰 미국·호주 등과의 가격경쟁에서 이기기 곤란할 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가격 경쟁에서 다소 뒤지더라도 품질이 앞서면 외국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길수 있기때문에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은 소득증대에 따라 식품소비 형태가 고급화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는 더욱 강조된다 하겠습니다. 일본의 화우가 수입쇠고기와의 큰 가격차이에도 불구하고 품질경쟁에서 살아남은 것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連載 栽培教室

92신규회원을 위하여…

토당귀 (土當歸)

1、학명：Angelica gigas NAKAI

2、과명：미나리과

3、성분：정유, Bergapten N-Valerophenoecarboxylic Acid, Carracrol, Serquiterpene, Nicotinic acid, Vitamin B_{12}등 함유.

4、용도：빈혈증, 진통, 진정, 강장, 통경약, 부인병약

5、사용부위：근(根)

6、재배법

가、적지

○기후：우리나라 전역에 재배가 가능하나 강원도를 비롯한 중북부의 산간지대의 서늘한 곳이 좋다.

○토질：경토가 깊고 습기가 다소 있고 부식질이 많은 식질양토나 약간의 점질양토가 좋고 5°~15°도의 경사밭이 좋다.

나、번식：종자직파와 육묘재배로 한다.

다、재배요점

○직파법：파종시기는 기후상태를 고려하여 10월중, 하순경에 파종하나 조기에 발아되지 않게 시기를 고려하여 파종해야 한다. 봄파종은 발아율이 떨어지며 발육이 좋지 않다. 밭을 깊갈고 1백50㎝정도의 두둑을 만들고 골과 골사이 45㎝간격을 띠우고 골을 켜고 파종한다. 파종후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을 덮고 짚을 덮어준다. 짚은 이듬해 봄에 발아가 되면 거두어 준다. 3백평당(10a) 종자 소요는 6ℓ 정도이다. 봄 파종시에는 가는 모래와 종자를 혼합 노천매장한후 파종하는 것이 좋다.

○육묘이식재배：3백평당(10a) 흙살이 부드러운 곳을 5~7평정도 선정하여 기비를 넣지 말고 2~3회 경운하여 부드럽게 한다음 1백20㎝정도의 두둑을 만들고 잘 정지한 다음 골을 켜지 말고 평두둑에 종자 3리터 정도를 고루 밀생되게 산파한다. 파종후 흙을 알맞게 덮고 짚을 덮어 준다. 발아가 되면 짚을 걷어 주고 중거름을 주지 말고 묘종의 크기가 되도록이면 굵지 않게 0·8㎝이하 되게 기른다. 육종된 묘는 당년 가을에 본밭을 준비하여 일당귀 정식과 같이 골과 골사이 45㎝간격을 띠우고 묘와 묘사이 15~20㎝ 정도 간격으로 곧게 식재하고 흙을 덮는다. 가을 정식은 노두부분이 폭 묻히게 흙을 덮어주고 봄 정식은 노두부분이 안보일 정도만 흙을 덮어 준다. 일당귀와 같이 3백평(10a)당 종묘 소요는 6천~9천주 정도이다.

○폿트육묘 멀칭이식 재배：기후변화에 당귀 꽃대가 전국적으로 올라와 당귀재배농가가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최근 폿트육묘 멀칭이식 재배가 성공하여 확대되고 있다. 1월경에 하우스를 설치하여 육묘폿트를 이용 당귀 어린묘를 육묘한다. 배수가 잘되는 상토를 준비해서 폿트묘상을 만들고 충실한 당귀 씨앗 2~3알씩을 파종하고 복토후에 미리 준비한 온상에 채우고 물을 준다. 약 1주일 간격으로 물주기를 하여 튼튼하게 키운다. 4월경에 정식 밭을 준비한 다음 흙색 비닐 멀칭을 한다. 멀칭 1주일후에 골사이 30㎝ 묘사이 25~30㎝되게 비닐을 뚫어가며 심는다. 단 멀칭당시 수분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물을 주면서 심는다. 3백평당 소요종묘는 8천~9천주이다. 시험한 결과 5천평에서 꽃대 올라온 것이 10포기 이내였다.

7、시비 및 관리

가、시비：일당귀 시비와 같이 3백평당 밭을 정지 작업하기 전에 기비로써 두엄 1천5백㎏, 잘 썩은 계분 80㎏, 복합비료(17~21~17) 2포, 초목회 60㎏을 산포하고 2~3회 경운후 묘종을 정식한다. 중거름은 생육상태를 관찰하면서 김매기와 겸하여 8월이후 시비하여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좋다.(김멘후에는 반드시 데브리 놀이나 스텝프를 살포해준다)

나、관리：성장과정에 따라 김을 매주고 7~8월경에 꽃대가 올라 오는 것은 뽑아 버린다. 그리고 7~8월 2회정도 인산과 가리의 추비를 해준다.

8、병충해 방제

성장이 왕성한 7~8월경 진딧물, 붉은응애가 발생되니 살충제를 산포한다(그외 탄저병, 균핵병도 발생되므로 방제해야 한다)

○장마가 계속되고 배수처리가 안되면 균핵병이 발생하며 이때 심한 것은 뽑아 버리고 이슬이 젖어 있을때 경엽에 짚재나 살균제를 살포하여 방제해야 한다.

9、수확 및 조제

수확은 일당귀와 같이 가을 10월후에 경엽을 노두에서 바싹 베어 버리고 뿌리가 부러지지 않게 캐서 흙에 잘씻어 건조장을 이용하거나 햇볕에 말린다. 건조도중 약간 부드러워 졌을때 뿌리부분을 곧게 펴서 30㎏단위로 단을 지어 완전 건조시키면 좋다. 수확량은 3백평(10a)당 생근 1천5백㎏(2천4백근)건재 5백㎏(8백근)정도 수확된다.

※유의할점

○일당귀와 같이 굵은 묘를 선정하면 안된다. 대략 7~8㎜이하로 곧은 묘를 선정해야 한다.

○진딧물, 응애, 균핵병을 구충 및 방제해야 한다.

○수확후 깨끗이 씻고 건조를 잘해야 한다.

○꽃대가 올라오는 것은 제거하지 말고 씨앗을 채취한다.

○직파 재배가 육묘이식보다 유리하다.(직파재배는 당년 수확이 어렵다)

○산성비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장마후에는 영양제를 살포하여 해독을 해줘야 잘 자라게 된다.

○토당귀 재배상 가장 주요사항은 묘선택에 있다. △강원도지방：묘굵기：7~9㎜정도 △중북부이남：묘굵기：6㎜이하